죽여도 살려도 자비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자비다

☞ 19면에서 계속

적으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바뀌지고 먹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모두가 바뀌지니까, 어떤 거 먹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말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없거든요. 하도 찰나찰나 바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無)"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을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하는 뜻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해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알아야 하고, 또 사생을 거치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된 이 자체가 인과 업으로서, 유전으로서 그 업보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이 거기에 붙어 있고 내 생명을 아끼는 '나'라는 조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세계에 끄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몸뚱이 속에서 그렇게 독안에 들어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인과로서의 업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되놔야 없어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건 어떤 거든지, 내게 원수 갚으려고 나오든 또 좋은 인연을 맺어서 갚으려고 나오든, 악과 선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놓는다, 너희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에다 다 놓는다 이겁니다. 팔랑개비가 돌아가면서 색깔을 내는 그 자체는 그 대에 의존해서 나오는 거니까 대에다 놔라 이겁니다. 대. 막대기. 그것을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다 그냥 되놔라 이겁니다. 이미 담겨 있는 카세트에다가 되넣으면 앞서 넣은 거는 없어지고 새로 넣는 것이 들어간다. 새로 또 넣는다면 앞서 넣은 거는 또 없어진다. 그러니 연방 그릇은 비면서 새 샘물이 나오는 거를 연방 떠먹어 가면서…, 그릇은 항상 비어 있으니 항상 새 물이 담기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잘하면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독사지옥이 무너지고 전체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잘 생각하셔서, 믿는 거는 대, 막대기를 믿고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것에 속지 말고 거기에다 다 놔라 이겁니다. 순간순간 생각이 나오는 대로 속으면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꿈을 잘못 꿨다고 속아서 '아이구, 내가 이거 꿈을 잘못 꾸었으니까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이 부적을 가지고 다녀야 내가 편안하고 내 몸이 건강하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동서남북이 다 터졌으니, 누가 서쪽이 막혔으니 서쪽으로 이사 가지 말래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날 가는 게 법이에요.

여러분이 부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100% 가졌다 하는 거는 그렇게 자유로운 무심, 중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고등 동물이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루하루 그저 모가지 쩍 잘려서 죽고 잡아먹히는 하천세계 짐승들과 다름이 없죠. 인간 수명이 70, 80, 90, 100, 보통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사생 가운데 하천세계에 사는 짐승들은 수명이 6개월도 되고 3개월도 되고 짧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인간 이 몸뚱이 속에 수많은 생명들의 인과가 나한테 자꾸 말로도 나오고 생각으로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싸움도 붙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싱그럽게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한마음으로 돌리는 것이 녹이는 거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맡겨 놓는 것이 속지 않는 것이며 보임을 하는 것이고, 보임을 잘하면 거기에서 부활이 돼서 하나가 툭 터져 나오면 그것이 바로 증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속에 들어 있는 마음 내기 이전은 나의 부(父)요, 마음 내는 것은 자(子)다 이럴 때, 자와 부가 따로 있느냐 이겁니다. 네? 그러면 자는 부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 또는 자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생각과 돌아가는 것을 부에게 다 놔라 이겁니다. 맡겨 놔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구성돼서 있던 하나하나의 인과라든가 유전이라든가 또는 원수, 업보 이런 것들이 다 보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마힐 거사가 그랬죠. "중생이 다 편안하게 나아야 나도 편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뚱이 속에 수십억 마리가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이니 위니 식도니 또는 콩팥이니 간장이니 다 소임을 맡아 가지고 공장장 노릇을 하죠? 공장장이 편안해야 직원들이 편안하고 직원들이 편안해야 부처가 편안하죠. 여러분 몸뚱이 속의 모든 중생들이 편안해야 여러분 몸뚱이가 편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 중생은 둘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여러분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이라고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 부처는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 겁니다. 부처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부처님이라면 때에 따라 삼십이응신으로서 나투시는데, 삼십이응신이라면 숫자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삼십 하면 여러분은 아주 달랑 숫자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세심을 상응하면서 혼연일체가 돼서 사생을 건지고 오온의 진리를, 모든 것을 파악하고 칠보를 가득 쥐고 여러분한테 달라는 대로 모든 걸 줄 수 있는 여건을 자유롭게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리만 아실 것 같으면 털구멍을 통해서 수호신이나 호법신이나 법신이나 화신이나, 또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용신, 지신 이런 헤아릴 수 없는 마음들이 모두 상응하면서 혼연일체가 돼서 천지인으로서 전부, 사생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내가 "알았소." 한다면 그 한마디 할 때 우주간 삼천대천세계 법계가 들썩 들려요. 다 알아요. 통신이 돼요. 그러니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몸과, 내 몸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다 질서 있게 이끌어 나가면서 한생각에 수십억 마리가 전부 한마음으로 따라 주는 그런 호법신이 되고 수호신이 되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예를 들어서 벌레 소굴에 들어갈 때는 벌레가 되니 부처는 벌레가 될 때도 있고 날아다니는 새가 될 때도 있고, 술 파는 작부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참, 지위가 높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게 될 수 있으니 어떤 거 될 때 부처라고 하겠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름을 지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악과 선을 다 놔라." 하는 이치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좌선을 한다고 앉았는데 자꾸 잡념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관하는 게 똑바로 관하는 겁니까?" 이러거든요. 지금 이렇게 빠른 세상에 요것조것 생각하다 보면 뭐 좌선한 게 있겠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똥 누나 밥을 먹으나 좌선이지요. 그리고 또 배우는 사람들은 앉고 싶으면 저녁에 조용한 때 30분이라도, 시간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 30분이라도 앉았을 때, 모든 것을 둥글려서 다 하나로 만들어서, 둥글게 만들어서 무겁게 놓고 관해 봐라 이거예요. 잡념이 거기 어디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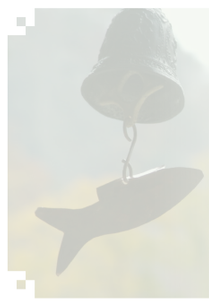
제사 지낼 때도 수없이 차려 놓고 해 봐도 그게 그거예요, 네? 조상들이 여러분처럼 또 나와서 고생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모찌떡처럼 크게 찹쌀떡 하나 해 놓고선 물 떠 놓고 향 피워 놓고 과일이나 서너 가지 한데 합쳐서 갖다 놓고 해도 삼천대천세계의 사생이 다 먹고도 그 떡은 되남아요. 어때요? 그 떡 하나 속에는 칠보가 가득하니까요. 여러분은 꼭 뭘 차려 놓고 '해 줍쇼' 하거든요. 스님들을 그렇게 성가시게 하고 귀신 만들면 여러분도 귀신 되고 같이 귀신 돼요. 사람이 귀신 노릇을 하니까 귀신이 있는 거지 귀신 노릇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있남? 마음은 그렇게 체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 이 도리를 아실 것 같으면 털구멍을 통해서 보살들이 수없이…, 만 개로 쓰려면 만 개로 쓰고 천 개로 쓰려면 천 개로 쓰고, 이러기 때문에 내 몸뚱이에 있는 것만 수호신으로, 화신으로, 약사로, 보살로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쓰거나 뭘 위해서 쓰는데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저런 가랑잎 하나까지도 전부 수호신으로 쓸 수 있어요. 왜? 거기도 그렇게 있으니까요. 딴 사람한테도 그렇게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자기를 언제나 빼놓고 다녀요. 극장에 들어가면서 극장표 살 때 자기 표는 빼놓고 언제나 남의 표만 사 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왜 타의에서 구해요? 나로 인해서 태초도 있는 거고 나로 인해서 바로 문이 생기는 건데, 그리고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있는 것이지 나 없고 뭐가 있어요? 모두 부처님 법을 믿으러 다닌다면서 도깨비들이 되고 있거든요.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부모나 돌아가신 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로 생각을 해요. 이 바쁜 세상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빼고 뭐 남는 게 있다고 무슨 내 마음을 깨닫고 그러겠소?

모든 것은 일 초 일 초 부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일 초 일 초 보람 있는 살림살이를 하시고요. 부처님 법은 자비한 것만이 아닙니다. 칼을 쥐고 죽이러 온다 하더라도 가만히 죽어 주는 것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정의 정당한 게 부처님 법이에요. 에누리가 없어요. 그것이 자비거든요. 죽여도 자비요 살려도 자비요, 안 되는 것도 자비요 되는 것도 자비라. 왜? 안 되는 것도 일 초에 넘어가거든요. 되는 것도 일 초에 넘어가고요. 그러니 그걸 조절해서 용도에 따라서 내가 쓰려면 쓰지 어디 규정돼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도 없는데. 불 켜고 싶으면 내가 스위치를 눌러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쓰는 거죠.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10월 2일 국내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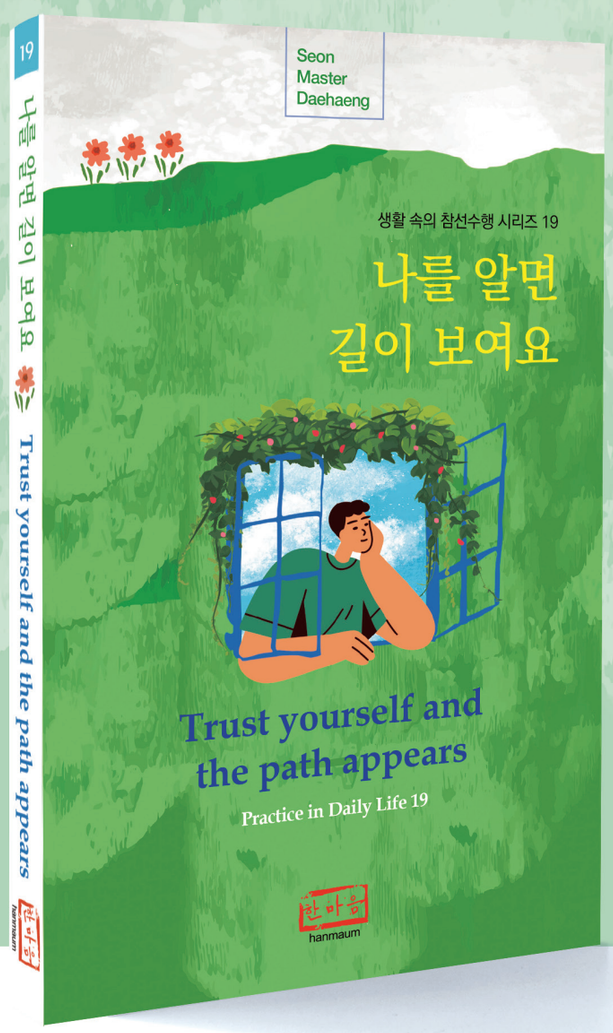


내 몸뚱이 속에 수많은 생명들의 인과가 나한테 자꾸 말로도 나오고
생각으로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싸움도 붙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싱그럽게 벗어나야 합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